

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시험

과 (전공)	수험번호	성명	감독관 확 인
-----------	------	----	------------

- 문제지와 답안지(OMR 답안지와 주관식 답안지)에 수험번호, 지원학과, 지원전공,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 문제는 주관식 답안지에, 객관식 문제는 OMR 답안지에 답하십시오. (문제의 번호와 답안의 번호가 일치하도록 주의할 것.)
-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 당시 팝아트와 관련해서 내 뇌리를 찔던 것은 팝아트가 플라톤의 가르침을 뒤집는 방식이었다. 플라톤은 예술을 모방으로 해석하여 상상할 수 있는 실재의 가장 낮은 등급으로 좌천시킨 장본인이다. 플라톤은 침대가 가지는 실재성의 세 가지 양태로 이데아나 형상으로서의 침대, 목수가 제작한 침대, 형상을 모방해 목수가 제작한 침대를 다시 모방한 침대 그림을 들고 있다. 아킬레스는 침대에 누워 있고 바닥에는 헥토르의 시체가 떨어져 있게 묘사한, 또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신부를 위해 만든 침대 옆에서 페넬로페와 오디세우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그리스 항아리들이 있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고자 했다. 즉 모방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것을 알고 있지 않아도 모방할 수 있으므로, 예술가들은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이다.

예술가들은 단지 현상의 현상만을 ‘알고 있다’. 그런데 1960년대 초의 미술세계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실제 침대를 보기 시작했다. 라우센버그의 침대, 올덴버그의 침대, 조지 시갈의 침대 등을 말이다. 내가 주장했듯, 예술가들이 미술과 실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제기되는 물음은, 이것들이 결국 침대라면 도대체 그 무엇이 이 침대들을 예술로 만들어주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문헌도 이것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나는 ‘예술계’에서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지 디키의 예술 제도론을 불러일으켰다. <브릴로 상자>가 이 물음을 일반화시켰다. 외관상 그것과 똑 닮았더라도 실제 대상은 그저 사물이거나 기껏해야 인공물에 불과한데도 어떻게 예술작품이 되는가? 그러나 그것이 인공물이라 할지라도 그 인공물과 워홀이 만든 것 사이의 유사성은 정확했다. 플라톤이 침대 그림과 침대를 구별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것들을 구별해낼 수는 없었을 것

이다. 사실 워홀의 상자들은 훌륭한 목공 솜씨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미술과 실재 사이의 차이를 더 이상 순수하게 시각적인 견지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예술작품’의 의미를 실례를 보여주면서 가르친다는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해 왔다. 따라서 워홀과 팝아티스트들은 철학자들이 미술에 관해 쓴 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거나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팝아트를 통해 비로소 미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철학적 물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물음은 이런 것이었다. 사실상 그 두 가지가 똑같아 보일 경우,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이 아닌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나에게, 미술에 관한 철학적 문제가 미술사 내부로부터 해명되었으며, 역사가 종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도판1>



1. 워홀의 <브릴로 상자>와 브릴로가 실제로 들어있는 상자를 미술작품과 보통 상자로 구별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3점)
- ㉠ 일상적인 삶의 대량생산품도 갤러리에 전시되면 미술작품이 된다.
 - ㉡ 미술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 예술작품의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이다.
 - ㉣ 외관상 동일하게 보여도 예술 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술작품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 ㉤ 실제 사물의 경우와는 달리 미술작품은 그렇게 존재하도록 이론화하는 것에 의해 미술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2. 마이크 비달로의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가 아님>은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차용한다. 윗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의 미술작품인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3점)

- ㉠ “모든 것이 예술작품이다” 또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등의 슬로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술의 종말 이후 어떤 것도 미술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팝아트가 고상한 미술과 저급한 미술의 경계를 허문 것처럼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 ㉢ 예술은 스스로 지시하고 스스로 인용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 ㉣ 확장된 의미의 재현으로, 무엇인가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변화시켜 팝아트의 한계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3, 주관식1】 다음 글과 그림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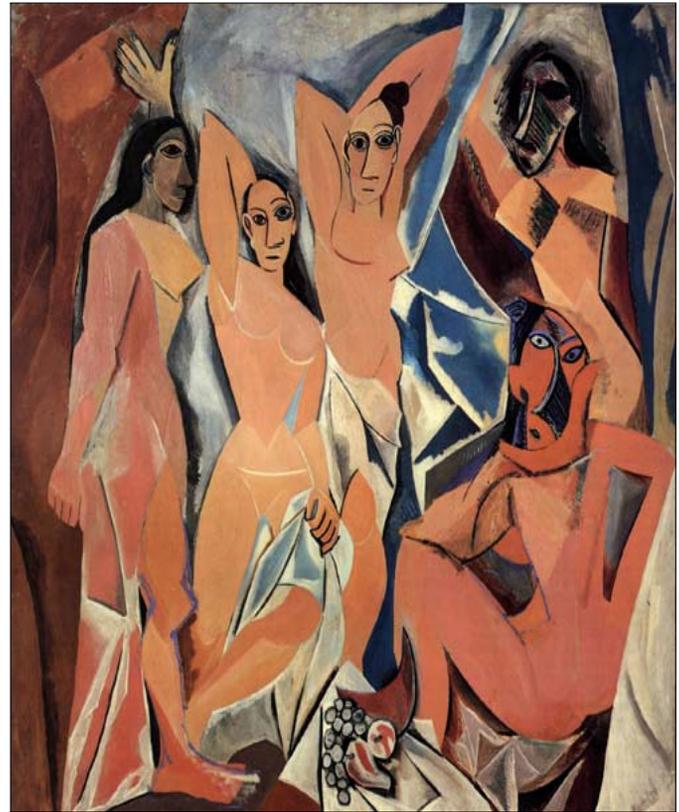
훙은 『취미의 기준에 관하여』에서 비평가를 위한 계명으로 여겨질 만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평가가 “섬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가 실천의 도움을 받지 않을” 때 “그가 비교법을 구사하지 않을 경우”, 그 비평가는 “디자인과 추론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아름다움을 분간해 낼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비평가는 섬세하고 실천이 풍부하고 개방적이고 비교할 줄 알아야 하며, 따라서 예술에 관한 폭 넓은 지식을 소유하고 좋은 감각을 부여받아야 한다. “어디에서 발견되든 간에 이러한 특질들이 결합된 판단만이 취미와 미의 참된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든 예술작품들은 하나이다. 또한 모더니즘은 흑인 조각품을 형식의 제도적 백과사전으로 간주되는 순수미술관 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취미의 범위를 확대시킨 미술운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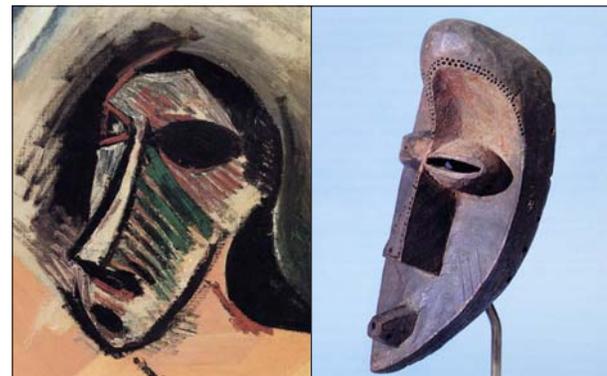
이것이 바로 1984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원시주의와 모던 미술” 전시회가 증명하고자 한 논제였다. 그러나 피카소가 1907년 트로카데로에서 접한 미술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은 디자인상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을까? 피카소의 회상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트로카데로의 벼룩시장은 역겨웠다. 나는 그곳을 벗어났으면 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아프리카 가면들은 어느 조각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들은 마술적인 것들이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점은 이것들이 마술적이 아니라 원시적이라는 점이다. 흑인 조각들은 일종의 중재자들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적 유령들이 대항하는 중재자. 나 역시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모든 아프리카 가면들은 일종의 무기였다. 유령의 지배에 맞서는 데 필요한 무기 말이다. 그날 나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모더니즘 미술은 취미에 의해 규정된 미술이며, 본질적으로 취미를 가진 사람들, 특히 비평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 미술은 위협적인 세계의 어두운 힘들에 맞서는 능력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도판3-1>



<도판3-2>

<도판3-3>

3. 흠의 예술관과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3점)

- ㉠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미적 형식주의에 입각해 있는 한 모든 미술관은 모던미술을 위한 미술관이다.
- ㉡ 모더니즘 미술은 취미에 의해 규정된 미술이며 본질적으로 취미를 가진 사람들 특히 비평가들을 위해 만들어진 미술이다.
- ㉢ 비평적 질문은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로부터 ‘무엇이 작품이게 하는가’로 이행하였다.
- ㉣ 미적 취미(taste)와 세련된 미각(palate)은 거의 구별되지 않으며, 이 두 가지 모두 교육을 통해 고상해질 수 있다.
- ㉤ 르네상스 이전의 미술들, 원주민 미술, 민속미술, 공예 등은 예술사의 경계 밖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없다.

[주관식1] 위 글과 그림에 근거해,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으시오.(4점)

피카소의 시대에는 유행의 ‘어두운 힘’이 쇠퇴하였고 마술은 기독교로 대체되었다. 당시 피카소는 미지의 적, 즉 그의 작업을 이해 못하고 비난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무기 삼아 사회에 대항하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작업으로 ()의 이미지를 새로운 조형언어로서 차용하였다.

[4,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현재 제품이 제공하는 독특한 가치체계와 생활양식,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얻는 총체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제품의 특징이나 사용편의만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디자인 과정보다 제품의 사용성이나 기능, 조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접근 이외에, 새로운 관점에서 사용자의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경험디자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 욕망, 신념, 지식, 기술, 경험 및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이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 이벤트, 환경 등을 통해 요구하는 ‘경험’을 디자인한다. 또한 사용자경험디자인은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식하고, 배우고,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는 디자인 활동이다. 즉, 기존의 경험을 분석하고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려는 디자인 활동을 말한다.

4. 윗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존의 디자인과 경험디자인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3점)

	내용	기존의 디자인	경험디자인
㉠	디자인의 대상	기능 / 편의	이벤트 / 환경
㉡	디자인의 근거	사용자의 가치	사용자의 요구
㉢	디자인의 목적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개발	문제해결
㉣	디자인의 관점	복선적	단선적
㉤	최종 산출물	문화 / 생활	제품 / 서비스

5. 어느 커피전문점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중 경험디자인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3점)

- ㉠ 고객의 요구를 기민하게 감지하고 고객과 대화를 즐길 수 있는 직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고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매장 분위기를 체험하게 한다.



<도판 5-1>

- ㉡ 여인상이 있는 녹색 심볼은 검정색과 대비되어 선명하게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며, 주목성이 강한 고딕체의 로고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도판 5-2>

- ㉔ 독특한 기능의 테이크아웃 용기는 청결함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커피의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도판 5-3>

- ㉕ 뜨거운 테이크아웃 용기를 감싸주는 슬리브를 통해 커피의 온기를 체감하게 함으로써 촉감으로도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게 한다.



<도판 5-4>

- ㉖ 날씨나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커피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한다.

Espresso			
SOLD 1.40	Espresso 5 cal.	Doppio 1.70	17 cal.
TALL 1.80	GRANDE 2.10	VENTE 2.45	25 cal.
10 cal.	15 cal.		
TALL 2.45	GRANDE 3.00	VENTE 3.30	33 cal.
120 cal.	150 cal.		
Cappuccino			
TALL 2.45	GRANDE 3.00	VENTE 3.30	33 cal.
120 cal.	150 cal.		
CUSTOMIZE			
MILK	SOY OR ORGANIC ADD 50		
ESPRESSO	EXTRA SHOT ADD 90		
SYRUP	CINNAMON + RASPBERRY + ALMOND		
	VANILLA OR HAZELNUT (VEGAN) ADD 30		
	CARAMEL + TOFFEE HIT + PEPPERMINT ADD 50		
	20 cal. regular; 0 cal. sugar-free		
Caffè Latte			
TALL 2.45	GRANDE 3.00	VENTE 3.30	33 cal.
300 cal.	250 cal.		
Caffè Mocha			
TALL 2.70	GRANDE 3.30	VENTE 3.60	490 cal.
310 cal.	400 cal.		
Caramel Macchiato			
TALL 2.80	GRANDE 3.40	VENTE 3.70	380 cal.
240 cal.	310 cal.		
White Chocolate Mocha			
TALL 3.15	GRANDE 3.70	VENTE 4.00	580 cal.
340 cal.	450 cal.		
Vanilla Latte			
TALL 2.70	GRANDE 3.30	VENTE 3.60	400 cal.
240 cal.	320 cal.		
Pumpkin Spice Latte			
TALL 3.15	GRANDE 3.70	VENTE 4.00	580 cal.
360 cal.	480 cal.		
Holiday Favorites			
Gingerbread Latte			
TALL 3.15	GRANDE 3.70	VENTE 4.00	580 cal.
330 cal.	430 cal.		
Eggnog Latte			
TALL 3.15	GRANDE 3.70	VENTE 4.00	630 cal.
430 cal.	510 cal.		
Peppermint Mocha			
TALL 3.15	GRANDE 3.70	VENTE 4.00	560 cal.
370 cal.	470 cal.		
Peppermint Hot Chocolate			
TALL 2.70	GRANDE 2.95	VENTE 3.00	600 cal.
400 cal.	510 cal.		

<도판 5-5>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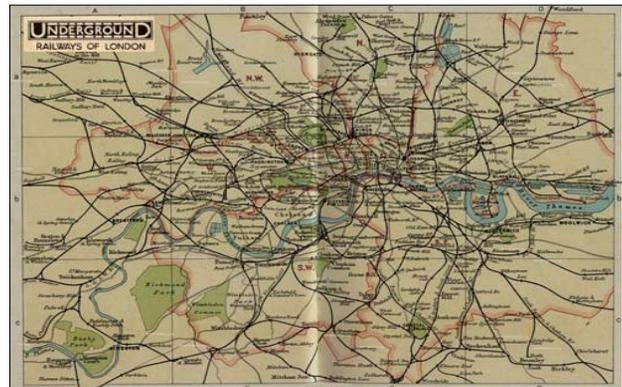
대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고밀화 주거단지 정책을 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다양한 밀도증대 방법 중 유독 고층화만이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주거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전반적으로 고밀화 현상이 가속되면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공적 공간의 개선의지에 비해 전용공간의 거주성을 지키려는 요구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거문화적 가치관이다.

6. 윗글은 1990년대 초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 건설된 어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우리의 주거문화를 비평한 글의 일부이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3점)

- ㉑ 주거지의 고밀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기업의 수익 확대를 위한 초고층화 정책은 결국 주거단지 내 소통 공간의 위축을 초래했다.
- ㉒ 고밀도화 정책의 파행에 의해 불거리 없는 회색 벽으로 포위된 아파트 단지는 반사적으로 실내 전용공간 확보와 고립화의 경향을 가속한다.
- ㉓ 아파트의 안마당이 주차장으로 전용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의 주민들은 소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의 확보에 소극적이다.
- ㉔ 주민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아파트 단지의 구조적 결함은 세월의 흐름을 감지하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 ㉕ 대지 규모가 적고 전용공간의 확장 욕구가 강한 우리의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적 공간의 활용방안을 개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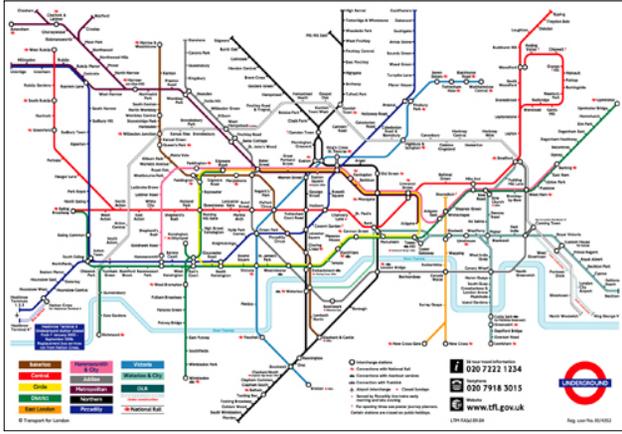
7. 다음 그림은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이다. 둘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4점)

그림 [가]



<도판 7-1>

그림 [나]



<도판 7-2>

[나]



<도판 8-1> 개선 전 <도판 8-2> 개선 후

- ㉠ [가]는 일반적인 지도와 노선도를 결합함으로써 문화 지리적 정보의 양이 많으며, [나]는 단순하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 정보의 양을 일부 제한하였다.
- ㉡ [가]는 지리적인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나]는 노선의 구성과 정거장의 배열에 초점을 맞추었다.
- ㉢ [가]는 도시 규모를 정확하게 표시하지만, [나]는 실제보다 규모를 작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욕구를 자극한다.
- ㉣ [가]보다 [나]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결정할 때 유리하다.
- ㉤ [가]는 지하철 이용의 소요시간을 산출하는 데 용이하고, [나]는 정거장 간의 거리를 인지하는 데 용이하다.

- ㉠ 순백색 바탕을 통해 럭키 스트라이크 담뱃갑이 깨끗해 보이도록 디자인한 것은 내용물의 신선함과 결합 없는 생산과정을 암시한다.
- ㉡ 최초 녹색바탕에 한쪽 면에만 빨간 심볼이 있었던 디자인으로부터, 양쪽 면 모두를 흰 바탕으로 바꿈으로써 인쇄 과정의 단순화를 통한 제품 향상을 달성했다.
- ㉢ 흰 바탕에 붉은 심볼 마크를 선명하게 대비시킨 것은 당시 해외이주자들이 품고 있었던 미국 이미지의 키워드, 즉 물질적 풍요와 청결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대중적인 기호품이 되는 데 기여했다.
- ㉣ 일본이 새로운 국가의 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일장기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디자인은 'STRIKE'라는 단어의 의미와 중첩되어 대중으로부터 무의식적인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 ㉤ 디자인 개선이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대중적 편향을 포착한 디자이너의 능력보다 포장의 조형적 혁신이 컸기 때문이다.

8. [가]는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포장 디자인이 발표되었던 1942년 직전 미국 사회의 상황을 요약한 내용이고, [나]는 그 디자인 개선 이전과 이후의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 포장 디자인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4점)

[9, 10,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럭키 스트라이크가 새롭게 디자인되었던 1939년부터 1942년 전후의 미국 사회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입된 어마어마한 이주자들이 모두 미국인으로 동일시되고 싶은 열망을 불태웠던 시기였다. 그들의 개개인의 일상생활에는 모국의 언어와 음식 그리고 관습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의 정규 교육, 신체적 건강과 강인함, 육체적 안락과 청결함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특히 청결과 안락함은 미국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럭키 스트라이크의 새로운 디자인이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색상, 디자인, 인쇄과정 등을 통해 바로 이점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루즈벨트 대통령의 1, 2차 뉴딜정책이 끝나갈 무렵인 1939년에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1년에는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됨으로써 일본이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가]

시인은 종속 상태에 얽매는 것을 비웃으며 자신만의 발명의 기운으로 고양되어 결국 또 다른 자연을 만들어 낸다. 그는 사물을 자연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거나, 자연에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들, 영웅, 반신, 사이클롭스, 키메라, 퓨리 등을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시인은 자연의 재능이 보장하는 좁은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주에 한해서 자유롭게 오갈 뿐으로, 자연과 손에 손을 잡고 간다. 자연은 수많은 시인들처럼 그렇게 풍부한 문양으로 세상을 만들어낸 바 없고, 시인들보다 더 어여쁜 강물이나 더 풍부한 과일, 더 달콤한 향기의 꽃나무도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낸 바 없다. 자연의 세계가 낯설기로 만든 것이라면, 시인은 온통 금으로 된 세상을 안겨준다.

[나]

생생한 묘사의 노력이 - 그것은 단지 알려진 어떤 것을 묘사하는 차후의 노력일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관계들을 보는 방식이기도 한데 - 예술가들에게서 쉽게 관찰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가들 사이에만 국한된 행위는 아니다. 같은 종류의 노력이 과학자나 사상가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요컨대 생생하고도 상상력 풍부한 삶,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묘사하고자 하는 심오한 노력은 예술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된다. 새로운 묘사와 의미의 노력이 예술 외에도 사상이나 과학,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무엇인가를 묘사하고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술이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들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을 묘사적으로 실현하고 다른 유기체와 경험을 공유하는 생생한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한다. 예술은 공유를 위해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다]

모방은 어린시절부터 인간에게 고유한 성질이며, 하등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기도 함으로 인간은 지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존재이며, 처음에는 모방함으로써 배운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모방의 작업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바로 이러한 점은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임이 드러난다. 비록 바라보기에 고통스러운 대상이라도 할지라도 - 예를 들면 아주 하등한 동물이나 시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가장 리얼리스트틱한 재현을 예술에서 보기를 좋아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은 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가장 큰 즐거움이며, 그림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배우기 때문, 즉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라]

예술가란 현실에 등 돌린 채 모든 관심과 리비도를 환상의 삶에서 그가 바라는 것을 창조해내는 데 쏟아붓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현실로 되돌아오는 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한다. 그는 환상의 삶만을 사는 사람은 아니다. 환상이라는 중간 세계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동의로써 공인한 것이다.

그는 자기 고유의 재료를 빚어 자신의 환상이 충실히 표현되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러한 환상적 삶의 반영에 즐거운 기운을 덧붙임으로써 적어도 당분간이나마 억압이 균형을 잃고 물러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을 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무의식적 쾌락의 원천으로 돌아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길을 열어주며, 그래서 그들로부터 감사와 존경을 받는다.

9. 다음 중 대립적인 관계를 보이는 쌍을 고르시오.(3점)

- ㉠ [가] - [라]
- ㉡ [나] - [다]
- ㉢ [가] - [다]
- ㉣ [다] - [라]
- ㉤ [나] - [라]

10. [나]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결론과 무관한 것을 고르시오.(3점)

- ㉠ 커뮤니케이션이 예술의 요체이며, 따라서 사회적 사실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제한 예술이론은 부적절하다.
- ㉡ 일반 대중도 '창조적 상상력'이라 불리는 자질을 기본적으로 예술가와 공유한다.
- ㉢ 예술의 의미, 예술의 가치란 사회적 문맥 속에서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 예술은 감정과 미, 무의식, 환상, 상상력 등의 특수한 경험 영역으로 자신을 승격시킴으로써 고유한 창조적 분야로서 인정된다.
- ㉤ 예술가의 활동이란 의미를 활성화하고 공통 경험적 감각을 재창조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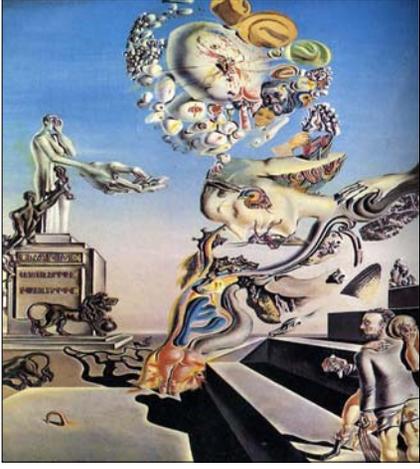
11. [라]의 예술관에 따라 그린 것을 고르시오.(3점)

㉠



<도판 11-1>

ㄴ



<도판 11-2>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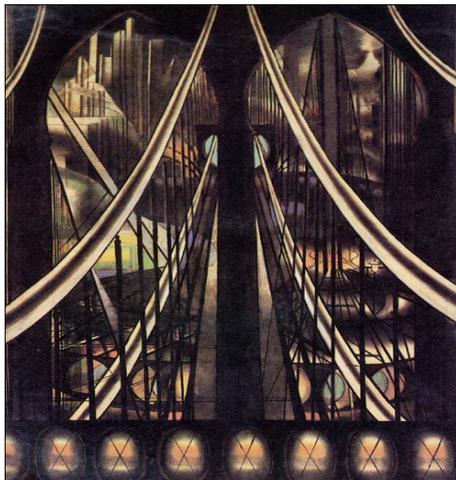
<도판11-3>

ㄹ



<도판11-4>

ㅁ



<도판 11-5>

[12,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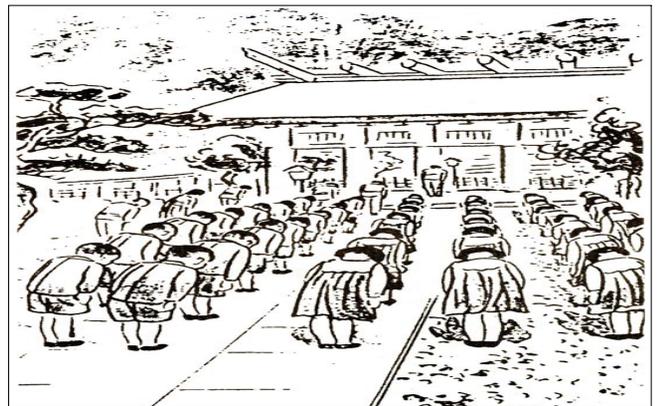
[가]

학교는 독자적인 ㉠ 공간적 영역을 갖고 내부에 고유한 장소와 ㉡ 지형적 배치를 갖는 곳으로 공간적으로 구획화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요소들이 점차 체계적으로 도입된다. 학생들은 수업 출석이 강요되었고, 여러 가지 학교 행사에 참여할 것 역시 강요되었다. 이유 없이 다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음주와 놀이, 노래 등에 대한 ㉢ 규제와 처벌이 만들어졌다. 항상적인 감독과 밀고, 신체적 처벌의 확장 등이 새로운 훈육의 체계를 특징짓는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과 행위를 특정한 형태로 양식화 하려는 것으로 이후 점차 강화되고 체계화된다.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할 수 없는 행위와 해야 할 행위의 체계가 학생들의 삶의 방식 전반을 규정하게 된다. 더불어 이는 선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여, 예전에는 동료나 선배였던 선생이 학생들을 감독하고 규제, 처벌하는 또 다른 ㉣ 양식화된 행위의 집합에 포섭된다. 결국 ㉤ 선생과 학생 간의 위계적 관계가 형성된다.

[나]

우리나라는 황실의 선조가 시작한 나라입니다. 국민은 선조 이래 황운의 부익을 받들어 이 훌륭한 나라를 지켜 왔습니다. 나라에 대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모두 마음을 하나로 하여 일신일가를 돌아보지 않고 충군애국의 길에 몸을 바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이고 한 번도 외국으로부터 국위가 손상되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번영해 가는 것은 천황의 위광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국민이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성을 군국을 위해 바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



<도판 12>

[라]

제군! 인생은 원래 가는 곳마다 학교이며, 가는 곳마다 전장이다. 학창에서 진리탐구에 정진하는 것도 일종의 전투일 것이며, 전장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 또한 일종의 학문일 것이다. 대의에 산다는 점에서 학교나 전진은 다같이 인생도량이다. 전선과 총후를 구별할 수 없는 오늘날 전장은 곧 학교의 연장임이 당연하다. 공리공론에 뜬 관념의 세계보다 더욱 철저하고 단적인 학문의 장소를 전진에서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인생에 있어 학문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학문에서 얻은 진리를 가치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행동이 곧 학문이라는 사실을 싫든 좋든 간에 몸소 인식해야 할 바로 그때다. 주저하며 회피할 게 아니라, 용감하게 나아가 이 관문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국난에 처하거나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해 청년학도가 용약출진하는 장렬한 자태는 역사상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이 강적을 앞뒤에 두고서 통일의 대업을 향하여 매진 분투하는 광경이라든가 보불전쟁 때에 '푸로샤'의 청년학도들이 맨 먼저 일어나 숙적을 쳐부수려고 돌진하는 광경 등, 천재일우의 기회를 타고 출진하는 장렬한 의기는 대의에 사는 제군이 평소부터 찬탄, 흠모해 왔던 것이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신라나 '푸로샤'의 청년들이 당한 그것보다도 더욱 광영 있는 일대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2. [다]는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국민학교 1학년 수신서(修身書)의 첫 페이지다. [가]를 읽고 그림의 이미지를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대목을 고르시오.(3점)

- ㉠ ㉠
- ㉡ ㉡
- ㉢ ㉢
- ㉣ ㉣
- ㉤ ㉤

13. [나]는 당시 국민학교 6학년 용 수신서의 내용 중 일부이고, [라]는 비슷한 시기 최남선이 쓴 것이다. 두 글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는 핵심 단어끼리 묶은 것을 고르시오.(3점)

- ㉠ 군국 - 매진분투
- ㉡ 천황의 위광 - 화랑도
- ㉢ 황운의 부익 - 장렬한 의기
- ㉣ 충군애국의 길 - 용약출진
- ㉤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성 - 진리탐구

【14】 다음 사진과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판 14>

[나]

한 장의 사진은 사진가가 단순히 어떤 사건과 만남으로써 찍게 된 결과물이 아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며, 사진은 그럼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항상 간섭하거나 침해한다. 이렇듯 사진은 무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사진기가 개입함에 따라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감각 그 자체도 침해를 받게 된다. 사진기가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언제든지 흥미로운 사건, 즉 사진 찍을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암시한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 사진은 계속 남게 되어, 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찍어둔 것에 일종의 불멸성과 중요성을 부여하게 된다.

14. [가]는 1969년 베트남 전쟁 당시 거리의 즉결 처형 장면을 찍은 사진이다. [나]에 근거해 설명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4점)

- ㉠ 현장에서 작가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윤리적 딜레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해당 사건이 종결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진은 대중의 기억 속에 계속해 하나의 사건으로 남게 된다.
- ㉢ 즉결처분은 찍을 만한 가치 있는 사건을 찾고 있던 일상화한 카메라에 의해 흥미로운 사건으로서 발견된 것이다.
- ㉣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충격적인 즉결처분의 현실, 그 실사적 재현으로서의 사진만큼이나 중요하다.
- ㉤ 당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기자는 그 곳에서 일어난 처형 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된다.

【주관식2, 15, 16】 다음 시들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산과 산 사이에는 골이 흐른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골
과 왼쪽으로 돌아가는 산이 만나는 곳에서 눈부신 햇살
도 죄어들기 시작한다 안으로 파고드는 나선은 새들을
물고와 씻소리를 낸다 그 속에 기름 묻은 저녁이 떠오른
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만큼 깊어지는 어둠 한번 맞물
리면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떠올랐던
별빛마저 씻가루로 떨어진다 얼어붙어 녹슬어간다

봄날 빈 구멍에 새로운 산골이 차 흐른다

[나]

마당에 내려앉았다

제 깃털을 가다듬은 작은 새
폐부의 심연에서 뽑아올리는 첫 울음소리
점점 몸 안의 기관장치에서 작동하는 내재울
밤새 앵두나무 꽃불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아침

가로등 아래 죽은 새 한 마리
자동차가 또 밟고 지나간다
길가에 고인 붉은 녹물

[다]

비에 젖은 나무가 녹슬어간다 창공을 가르고 날아온 햇
별이 저물녘까지 내려친다 뿌리까지 누른다 등글고 납작
한 단 하나의 은빛 이파리에서 물이 떨어진다 물방울 꽃
힌 자리마다 깊게 파인 보도블록 사이로 줄기가 박힌다
꽃은 피지 않는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잎이 툭 끊어진다

산에서 가져온 묘목 도로변에 심어졌다

[라]

검은 구두들 사이
날날의 흰 종이를 문
가늘고 단단한 은빛비늘
휘어져 역센 허리
선연한 붉은 자국만 남기고
사라진
물고기
파닥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마구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다

지하철에서 그는 문득
거대한 유리빌딩으로 헤엄쳐 올라갔다

[마]

다시 내린 눈으로
바퀴 자국 지워졌다
찌그러진 자동차가 견인되었다
엠블런스가 아득히 멀어져갔다
눈물 없이 울던 그녀의 뒷모습
새벽안개와 함께 지상에서 걸렸다
불을 품은 뜨거운 얼음에 데인 적이 있다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중에 녹아 사라진다
하늘 한가운데 구름이 흘러간다

【주관식2】 위의 시들은 모두 특정한 사물에 대한 연상에 의해 만들어졌다. 각각의 시와 관련 깊은 사물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 (중복 선택은 불가)(5점)

<보기>

가로등, 나사, 나프탈렌, 드라이버, 드라이아이스,
라이터, 압정, 지퍼, 클립, 펌프

[가] :

[나] :

[다] :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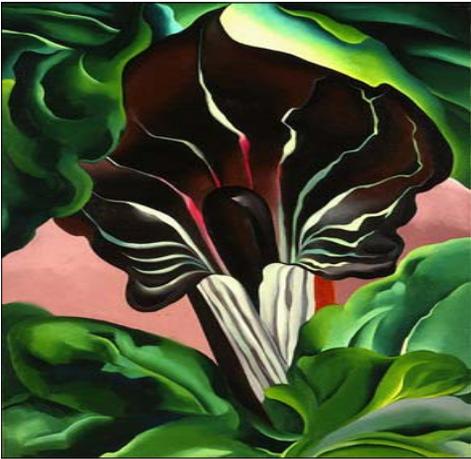
[마] :

15. 각 시에서 고른 시어들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4점)

- ㉠ [가] 나선-산골
- ㉡ [나] 울음소리-내재울
- ㉢ [다] 보도블록-도로변
- ㉣ [라] 은빛비늘-유리빌딩
- ㉤ [마] 새벽안개-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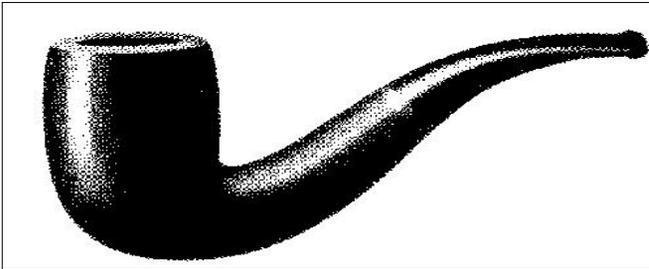
16. [가]에서 시적 대상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고르시오.(3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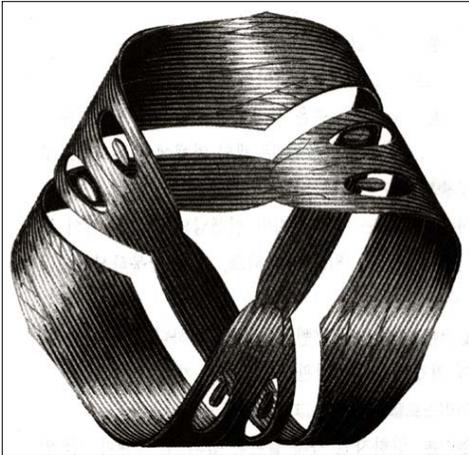
<도판 1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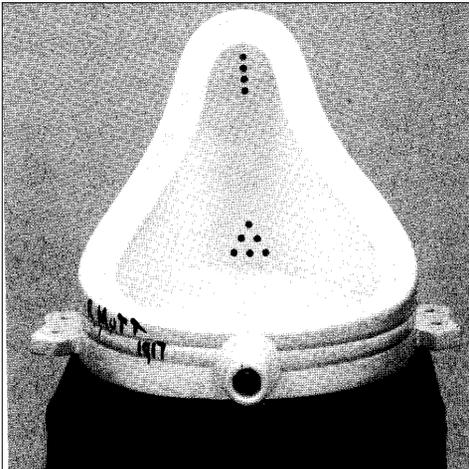
<도판 16-2>

㉢



<도판16-3>

㉣



<도판 16-4>

㉤



<도판 16-5>

【주관식3, 17, 18, 19】 다음 희곡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등장인물

플로

비

루

(나이는 알 수 없음)

무대 중앙에 플로와 비, 그리고 루가 정면을 향해 나란히 앉아 있다. 상체를 똑바로 펴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앞을 응시하고 있다.

비 루.

루 응.

비 플로.

플로 응.

비 ㉠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지?

루 그냥 가만히 있자.

침묵.

비, 오른쪽으로 퇴장.

침묵.

플로 루.

루 응.

플로 비를 어떻게 생각하니?

루 ㉡ 글썬 뭐 별로. (플로, 가운데 자리로 옮겨 앉으며 루에게 뭐라고 껌속말을 한다. 루, 소스라치게 놀란다.) 아! (둘은 서로 얼굴을 쳐다본다. 플로, 그녀의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댄다.) ㉢ 갠 모르고 있을까?

플로 제발 그래야지.

비, 들어온다.

플로와 루, 정면을 향해 돌아앉으며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비, 오른쪽에 앉는다. 침묵.

19. 작품의 맥락을 고려할 때 ㉔의 반지와 유사한 느낌이나 의미를 전해주는 이미지를 고르시오.(4점)

㉑



<도판 19-1>

㉒



<도판 19-2>

㉓



<도판 19-3>

㉔



<도판 19-4>

㉕



<도판19-5>

【20,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원기씨가 병원에 왔다. 그는 정인지체 장애가 있어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더구나 같이 온 노모마저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 그와 의사 소통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두 분 중 누가 아파서 병원에 온 건지를 알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아서 이들 모자가 오시면 접수실에서부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한다.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다. 거의 고품 수준의 고성인 오가야 겨우 몇 가지 병세를 알아낼 수 있다.

㉑ 그런데 오늘은 시작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았다. 아침부터 원기씨의 얼굴색이 고추잠자리처럼 빨개져 있었고 진료실에 들어서면 걸음걸이도 아예 갈지자로 비틀거렸다. 노모 역시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그만큼 술 목지마라 안 하더냐! 목지도 못하는 술을 그렇게 퍼마시나. 아이고 차라리 니하고 내하고 마 어디 가가 꼭 디져뿌리자 이노무 자숙아!” 하시며 다짜고짜 아들의 어깨를 잡고 등을 마구 때리쳤다.

아마 어젯밤에 원기씨가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원기씨는 자기를 때리는 노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보고 씨익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원기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청하는

버릇이 있다. ㉠ 내가 손을 마주 내밀자 그 억센 손으로 내 손을 쥐고 몇 번 흔들더니 갑자기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진료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마 구토하러 화장실로 간 모양이었다.

㉡ 그러자 노모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시며 하소연을 하셨다. “원장님요, 자가요 평소에는 천사인데 술만 마시면 저런 아이니까. 원래 술도 못 마시는데 요번 추석 때부터 저래 술을 마시네요. 추석에 지 조카가 지 흥내를 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 니더. 그날부터 자가 저라니더. 일 학년짜리 아아가 무슨 철이 있겠니까. 저거 큰아버지 몸 불편한 거랑 말 못하고 어버버버하는 거를 흥내 내는 것을 보고 자가 쇼크를 받은기라예. 그러고는 밤마다 어디 가서 술 먹고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우는데. 조카가 어버버 흥내를 내다가, 또 울다가, 또 흥내를 내다가..... 아이고.”

㉢ 그 사이 화장실에 다녀 온 원기씨가 다시 내 손을 잡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어버버’하고 계속 하는데 확실히는 몰라도 자기 동생들과 조카들이 자기를 놀린 것을 나에게 뭐라고 하소연 하는 것 같았다. 조카가 자신을 놀리는 모습을 재연하는 그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순간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어릴 때부터 남동생 둘은 공부를 씩 잘했으나, 형을 늘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다고 한다. 동생들이 결혼할 때도 제수씨에게 형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행동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노모가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저거들은 다 머리가 좋아서 서울에 좋은 학교 나와서, 큰 회사 다니고 추석에 마누라, 자식들 데리고, 좋은 차 타고 내려오는데, 자는 저렇게 술이라고 마셔야 맺힌 속이 안 풀리겠느냐”고, 이번에는 할머니께서 원기씨를 애써 변명하셨다.

일단 진료를 마치고 링거를 맞히려고 원기씨를 병실로 보내는데 그가 진료실 나서면서 내게 또 악수를 청했다. 나와 동갑인 그의 눈이 마치 아이의 그것과 같았다. 그 눈을 보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할머니 가슴은 오죽하랴 싶었다. 그렇게 그를 병실로 보내고 한 시간쯤 후에 병실에 가 보니 할머니는 보호자 침대에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시고 원기씨도 검게 탄 오른팔에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다. ㉣ 그런데 그의 눈가는 아직도 촉촉했고, 양말도 없이 담요 사이로 비집고 나온 거친 발에 박인 굳은살은 그가 살아온 슬픈 삶의 나이트를 대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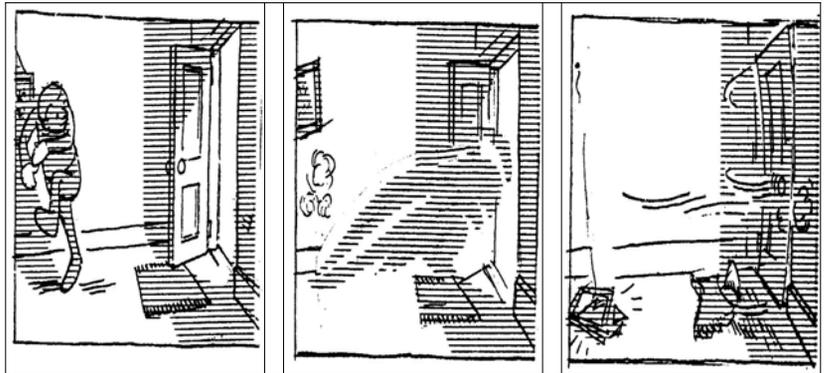
20. 윗글을 소재로 단편 시나리오를 쓰려고 한다. ‘원기’를 주인공으로 가정하고 인물의 성격화 작업을 시도할 때

바람직한 고려 사항으로 보기 힘든 것을 고르시오.(4점)

- ㉠ ‘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얻기 힘들다, 관객은 그의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 ㉡ ‘원기’의 성격은 인간의 원형에 맞닿아 있다.
- ㉢ ‘원기’의 ‘상처 받기 쉬운 마음’이라는 그의 성격은 관객들과 정서적으로 쉽게 교감할 수 있다.
- ㉣ ‘원기’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 ㉤ ‘노모’는 ‘원기’의 숨겨진 성격을 드러내는 ‘촉매’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21. 아래는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극적인 행동’을 새롭게 정의하는 글과 그림이다. 새롭게 정의된 ‘극적인 행동’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4점)

극적인 행동 :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앞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 더 극적이다.



- ㉠ ㉡
- ㉢ ㉣
- ㉤ ㉥
- ㉦ ㉧

[22,23]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19. 미라 집. 마루

다음 날 낮. 어른 셋,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있다. 숟가락 부딪치는 소리만.

형철, 두 여자를 보다가 갑자기 아이 씨, 인상 쓰며 숟가락을 딱 놓는다.

두 여자,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지만 동작은 잠시 멈춘다.

형철 (씩씩거리며) 머 이래 이거. 이게 사람 사는 집야?

형철 벌떡 일어난다. 나갈 듯하더니 형철, 갑자기 두 여자를 향해 큰절을 한다.

형철 누님들! 누님들아! 나 한 번만 봐주라. 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거잖아. 심성 착한 거 그거 어특하겠어 그걸. (미라 앞에 무릎 딱 꿇고) 누나, 좀만 도와주라. (방을 가리키며) 채현이 재, 어린데 불쌍하잖아. 애가 무슨 죄야. 내가, 쯤만 기다려 내가. 내 진짜 책임질게. 인간 이형철! 이렇게 쉽게 죽지 않거든. 나 안 죽어. 책임진다면 지는 인간이잖아. 아 씨, 한 번만 웃어줘라 좀, 누나. 누나 착하잖아.

㉠ 형철 갖은 애교 다 부린다.

안쓰러울 정도로 애교 부리지만 누님들 꼼짝도 하지 않는다.

형철 아 참 대낮부터 술 한 잔 해야겠네.

왜들 이렇게 인생 하드하게 사냐. 응? 그냥 조은게 조은 거지. 에이 재미없어. 참 사는 거 재미없다. 다들 약해 너무. 참! 다 모여 살면 힘이 나는 거지. 없던 힘두 생기는 거지. 그런 건데, 아 약해, 약해. 아 힘 빠지게들 한다, 진짜.

형철 일어난다.

러닝 위에 체크무늬 남방 하나 걸치고 나가려다가 주머니 뒤지며

형철 아 참 돈을 안 뽑았네. 무신 씨, 나 만 원만.

무신, 대꾸도 없다.

형철, 구석에 놓인 미라 가방을 열더니 지갑 속에서 만 원 한 장 꺼내들고 나간다.

형철 누나, 잠깐 빌린다. 딱 만 원야. 들어올 때 바로 뽑아다 줄게.

슬리퍼 질질 끄는 소리. 미라 쳐다도 안 본다.

형철 (애교 있게) 뭐 먹구 싶은 거 없어들? 아 참 누나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사온다.

이때 채현, 잠에서 깬 듯 눈 비비며 형철 방에서 나온다.

채현 엄마아~

형철 어 우리 채현이 잠했어. 맛있는 거 사다줄게 아찌가. 쯤만 기다려. 딱 백만 세라. 그 안에 올게.

㉡ 슬리퍼 소리 멀어진다. 채현, 무신 옆에 와서 기대며 앉는다.

상도 안 물린 채 그래도 앉아 있는 여자 셋.

그대로 시간 흐른다.

어두워진다.

밝아진다.

밤,

낮,

반복된다.

여자들은 마치 석상처럼 밥상 앞에 앉아 있고

채현만 팔짝팔짝 뛰다가 걷다가 하며 돌아다닌다.

채현, 재밌다는 듯 수돗간 커다란 빨간 다라이 통에 들어간다.

마치 빨간 화분 속에 심어진 식물 같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다.

S#20. 분식집.

한 달 뒤.

무신, 주방에서 떡볶이 만들고 있다. 학생들 변함없이 떠든다.

여고생1 근데 여긴 누가 해두 맛이 똑같네.

여고생2 아냐, 이 아줌마가 더 맛있는 거 같애.

무신 맛있게들 먹어.

형철이 들어왔던 장면처럼, 문이 열린다.

무신, 깜짝 놀라 문을 바라본다. 형철이 아니라..... 미라다.

미라, 헬쓱한 얼굴로 천천히 들어온다. 미라 뒤를 따라 들어오는 채현.

인형을 들고 있다. 익숙한 듯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채현.

무신 ㉢ 아직 누워 있지 왜 나왔어요. 여긴 내가 다 하구 있는데.

미라 아니, 괜찮아요.

여고생1 어, 언니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갔었어요?

무신 이 언니 많이 아팠어.

무신, 미라의 이마를 만져본다.

무신 아직두 열 있는 거 같은데.

여고생 언니 많이 아팠어요?

미라 응. 열이 사십 도까지 올랐었어. 죽을 뻔 했다 정말.

여고생 상사병이구나.

미라 하튼 니네들은..... 연애밖에 모르냐?

여고생1 아냐 아냐 상사병 맞아.

여고생2 언니 그 바퀴벌레 아저씨랑 헤어졌죠?

미라 아 글썸 그 아저씨는 내 애인이 아니라 여기.....

미라, 무신을 보며 뭐라 말하려다 만다.

미라 아니다. 헤어졌다 헤어졌어. 됐냐? (웃으며) 그 오빠 집 나갔어.

언니 맘 아프거든. 열두 나구. 그니까 자꾸 건들지 마세요.

무신 오늘두 전화 없었죠?
 미라 그렇죠 뭐.
 무신 과일 박스 하나 들구 헤헤거리면서 나타날 때가 됐는데.
 미라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무신 저기.....김 사장님은?
 미라 그냥 그렇죠 뭐.
 무신 아 예.
 여고생1 아줌마는 (손가락으로 둘을 가리키며) 어떤 관계세요?
 미라 좋은 사이야. 더 알면 다친다.

이때 미라 눈앞으로 쓱, 내밀어지는 물수건. 채현, 들고 서 있다. 익숙한 듯.

미라 아이구 이거 올려 놓으라구? 이쁜 거.

미라, 수건을 이마에 올려놓는다.

여고생1 어머! 앤 언니 딸이죠? 애부터 낳았다 그지?

미라 아냐 조카야.

여고생2 이뿌다. 언니랑은 확실히 안 닮았네. 어쩜 이렇게 이뿌냐.

채현, 늘 듣는 소리라는 듯 태연히 어깨 으쓱한다.

S#21. 미라 집. 현관

현관 앞에 누굴 기다리듯이 앉아 있는 채현.
 채현, 혼자 손장난하며 형철을 기다리는 듯 골목을 살핀다.
 ㉠ 무신, 가방을 챙겨 마당으로 나선다.
 훨씬 마르고 헐쭉해진 미라, 말없이 멍하니 그들을 바라만 본다.

무신 갈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미라

미라, 말없이 채현을 쳐다보다가 멍하게 손을 내민다.
 채현, 와서 미라에게 한 번 안긴다. 미라, 채현을 꼭 안는다. 눈빛이 멍하다.

무신 형철 씨 오면 연락 주세요.

미라 (풀이 죽어) 어디루요?

무신 어디 자리 잡으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미라 올케 가구 나면 떡볶이집 누가 도와주나. 누굴 구해야 되겠다, 인제.

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단골두 많든데. 채현아, 이리 와.

채현 (미라에게) 이모, 인제 아프지 마.

하얀 모자를 쓴 채현, 순순히 무신 쪽으로 간다.

미라 그래. 다음에 채현이 감기 걸리면 이모가 찬 물수건 올려줄게.

채현 네.

일시 정적.

미라 형철이 그쪽으로 연락 가면 여기루 연락 줘야 돼요 올케. 꼭.

무신 그럼요.

미라 그 인간..... 더 기다려 보면.....

미라, 말을 잊지 못한다. 무신, 대문을 열고, 나가려다 한 번 뒤 돌아본다.

미라, 대문까지 나가지 않는다. 마주보는 둘.

아무 말 없이 미라를 쳐다보는 채현.

S#22. 미라 집. 마루

㉠ 비 주룩주룩 내린다. 미라, 마루에 앉아 비 내리는 걸 바라본다.

저도 모르게 무신이 부르던 노래 부르고 있다.

님 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찌그리면.....

㉡ 미라, 갑자기 담배 피운다. 연기 하늘로 올라간다.

이때 전화벨 소리 울린다. 미라,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바라본다.

22. 연출가는 시나리오에 주어진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를 주관적 시간이라고 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4점)

- ㉠ ㉡
- ㉢ ㉣
- ㉤ ㉥
- ㉦ ㉧
- ㉨ ㉩

23. 씬 20에서 밑줄 친 ㉠에 관한 설명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3점)

- ㉠ 말하는 인물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암시를 통해 현실감을 드러낸다.
- ㉡ 말하는 인물의 정서적 상태를 지지해주고 있다.
- ㉢ 말하는 인물의 신체적 동작을 연상케 함으로써 관객들의 반응을 기대하게 한다.
- ㉣ 말하는 인물을 통해 영화의 전체 톤을 설정한다.
- ㉤ 말하는 인물의 정서적 상태 변화를 추측하게 한다.

【24, 25, 26】 다음은 어느 소설의 주요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리델 하트가 쓴 『유럽 전쟁사』 242쪽에는 1916년 7월 24일 영국군 13개 사단이 세르 몽또반 전선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9일 아침까지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다. ㉠ 리델 하트 대위는 폭우 때문에 공격이 연기되었을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칭따오 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유춘 박사가 구술하고 검토 서명한 아래의 진술은 그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처음 두 쪽은 소실되고 없다.

[나]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독일어로 대답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나는 단박에 기억해냈다. 리차드 메든 대위의 목소리였다. 빅토르 루네베르크의 아파트에서 그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목숨마저도 끝장났음을 의미했다. 또한 루네베르크가 구속되거나 살해되었음을 뜻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나도 같은 운명을 맞을지 몰랐다. 메든은 냉혹한 인간이었다. 영국군에 들어간 아일랜드인, 태도가 미심쩍고 반역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그런 기적적인 기회를 덤석 붙들지 않겠는가? 독일 제국 두 명의 첩자를 체포하고 사살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나는 내 방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좁은 철제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창문 사이로 낮익은 지붕들과 구름에 덮인 여섯시의 태양을 보았다. 어떤 징조도 없이 무자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중오와 공포의 갈림길에서 안절부절 못한 채 들떠 있을 메든은 내가 ‘기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심치 않으리라. 앙코르 강변에 주둔한 영국 포병대의 정확한 위치 말이다. 잿빛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를 보며 나는 프랑스 상공을 가득 덮은 채 폭탄을 투하해 영국군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비행기들을 연상했다.

한 발의 탄환이 내 입을 부수기 전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이름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가 대장의 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병들고 증오스런 인간의 귀에. 그는 루네베르크와 내가 스탠포드셔에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 베를린의 썰렁한 사무실에서 끝없이 신문을 뒤적거리며 우리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지. 나는 큰소리로 외쳤다. 도망가야 한다. 메든이 숨어서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숨죽인 채 몸을 일으켰다. 주머니를 뒤졌다. 미제 시계, 니켈 사슬, 네모

난 동전, 루네베르크 아파트의 열쇠, 수첩, 파괴하려고 마음먹었던 편지 한 장, 가짜 여권, 크라운 은화 한 닢, 2실링과 몇 펜스, 연필 한 자루, 손수건 그리고 단 한 발의 탄환이 남은 리볼버. 나는 용기를 얻기 위해 리볼버를 손에 쥐고 무게를 가늠했다. 10분쯤 후 내 계획은 윤곽을 드러냈다. ㉢ 나는 독일에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의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냈다. 그는 기차로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펜톤의 교외에 살았다.

[다]

스티븐 알버트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아주 컸고, 날카로운 인상의 얼굴에 회색 눈을 가졌고 잿빛 구레나룻을 길렀다. 그는 성직자처럼 보이는가 하면 선원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그는 중국학 학자가 되기 전 한때 텐진에서 선교사였다고 말했다. 나는 길고 낮은 소파에 그는 창문과 벽시계를 등진 채 앉았다. 추적자 리차드 메든은 한 시간도 채 안 돼 들이닥칠 것이다. 나에게서 시간이 별로 없었다. “취팽의 삶은 경이로웠소. 고향의 성주가 되었고 천문학, 역학, 사서삼경의 대가였으며 장기의 명인이었고 탁월한 시인이자 서예가였소. 그는 단 한 권의 책과 미로를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지요. 대신 그는 13년 동안 ‘청고루(淸孤樓)’에 칩거했소. 그가 죽은 후 후손들이 발견한 것은 혼란스러운 원고몽치 뿐이었지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그의 가족은 원고를 태워 버리려 했소. 그러나 그의 유언의 집행자가 출판을 고집했지요.”

스티븐 알버트가 말했다.

“우리 취팽의 후손들은 그 수도승을 저주하고 있소. 그 원고의 출간은 쓸데없는 짓이었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초고에 불과했으니까. 예를 들어 보겠소. 3장에 죽은 주인공이 4장에 버젓이 살아있어요. 취팽의 또 다른 작업, 미로에 관해서라면…….”

내가 말했다.

“그 미로는 바로 여기에 있소.”

래커가 칠해진 높은 책상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상아로 만든 미로라! 정말 조그마한 미로군!”

나는 탄성을 질렀다.

“상징들의 미로지요. 시간의 불가시적 미로이기도 하구요. 나는 그의 소설이야말로 미로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단서가 해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취팽 선생이 완벽하게 계속될 미로를 꿈꿨다는 소문이었고 두 번째 단서는 내가 입수한 편지의 어떤 대목에서 발견되었지요.”

알버트가 일어섰다. 그는 황금빛 책상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빛바랜 원고지에 쓰인 편지는 이제 주홍빛을 띠고 있었다. 서예가로서 취팽의 명성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나와 피를 나누는 사람이 붓으로 정교하게 적은 어떤 문장을 나는 찬찬히 읽었다. “나는 다양한 미래를 향해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을 남긴다.”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었다. 나는 편지를 돌려주었다. 알버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편지를 입수하기 전에 한 권의 책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나는 취팽의 작품을 다시 읽고 내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㉔ 모든 허구적 작품에서 독자는 매년 여러 가능성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팽의 소설 속에서 독자는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양한 미래, 다양한 시간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들은 무한히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증식합니다. 예를 들어 팽이라는 사람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데 낯선 자가 방문을 두드리자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당연히 결말은 다양합니다. 팽이 침입자를 죽일 수도 있고, 침입자가 팽을 죽일 수도 있고, 둘 다 살 수도, 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팽의 작품에서는 모든 결말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결말은 또 다른 갈라짐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일 내 형편없는 발음을 양해한다면 몇 쪽 읽어보겠습니다.”

[라]

“나는 이 원고가 지닌 혼돈의 본질적 의도를 분석했고 작품 전체를 번역했지요. 확실한 것은 취팽이 한 번도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취팽의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은 우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는 시간의 무한한 연속, 눈이 핑핑 돌 정도로 어지럽게 증식되는, 분산과 수렴을 거듭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시간의 그물을 믿은 거지요. 우리는 이 시간의 일부분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나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에서는 반대죠. 또 다른 시간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존재합니다. 호의적인 우연이 내게 부여한 현재의 시간에서 당신은 내 집에 당도했습니다. ㉕ 그러나 다른 시간, 그러니까 정원을 가로지르던 당신은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취팽의 정원을 복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는 없겠죠. 시간은 셀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영원히 갈라지니까요. 그 어떤 시간에서 나는 당신의 적이지요.”

집을 둘러싼 녹진한 정원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다른 시간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알버트와 나였다. 눈을 부릅뜨자 악몽은 사라졌다. 정원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동상처럼 강인해 보이는 자였다. 그는 오솔길을 따라 걸어왔다. 리차드 메든 대위였다.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편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말했다.

알버트가 일어섰다. 책상 서랍을 열기 위해 그는 돌아섰다. 나는 리볼버를 꺼내들었다. 신중하게 총을 발사했다. 알버트는 외마디 비명도 내뱉지 못한 채 풀썩 쓰러졌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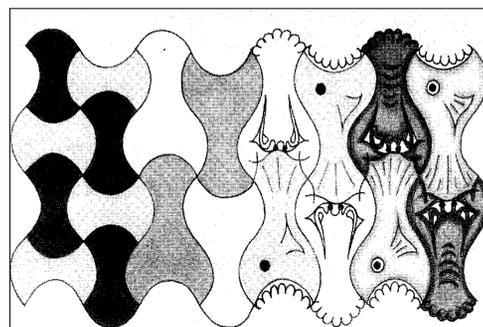
나머지 얘기는 비현실적이고 하찮은 것들이다. 메든 대위가 뛰어들었다. 나는 체포되었고 교수형 선고를 받았다. 증오스럽게도 내가 승리했다. 나는 공습해야 할 도시의 이름을 베를린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 어제 그곳에 폭격이 가해졌다. 나는 공습 소식을 탁월한 중국학자 스티븐 알버트가 유춘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살해당했다는 암호를 실은 신문에서 읽었다. 내 대장은 암호의 뜻을 알아차렸다. 알버트라는 이름의 도시를 알려야 하는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그것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끝없는 참회와 피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것이다.

24. 위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4점)

- ㉑ [가]에 따르면 ‘나’의 이야기는 실화다.
- ㉒ 결말의 반전을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풍자하고 있다.
- ㉓ 가능한 여러 가지 결말 중 하나를 택하게 하고 있다.
- ㉔ 기하학적 상상력에 의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 ㉕ 암시적인 대화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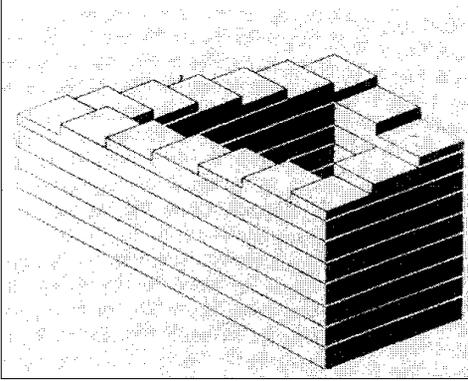
25. ‘스티븐 알버트’가 ‘취팽’의 소설을 해석한 내용과 유사한 이미지를 고르시오.(3점)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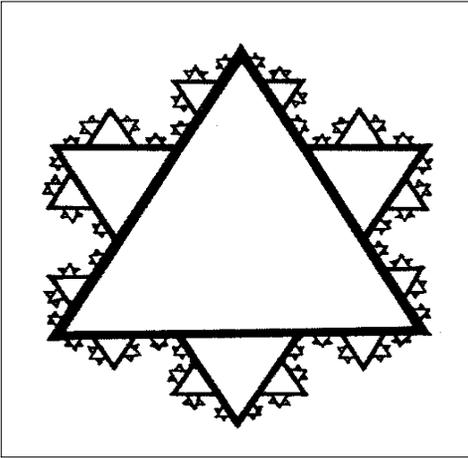
<도판 25-1>

㉠



<도판 2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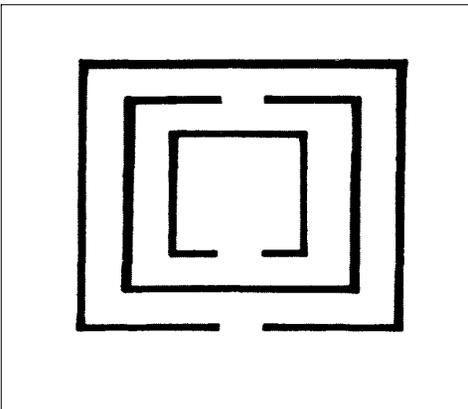
<도판 25-3>

㉢



<도판 25-4>

㉣



<도판 25-5>

26. [라]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복선으로 기능하는 문장을 고르시오.(3점)

가 기

나 니

다 디

라 리

마 미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제출하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으시오.

2008학년도 창의적 사고능력 평가 답안지

객 관 식					
번호	답	배점	번호	답	배점
1	다	3	14	가	4
2	마	3	15	라	4
3	마	3	16	가	3
4	가	3	17	마	3
5	다	3	18	다	3
6	마	3	19	나	4
7	마	4	20	가	4
8	마	4	21	라	4
9	다	3	22	다	4
10	라	3	23	라	3
11	나	3	24	마	4
12	라	3	25	다	3
13	라	3	26	나	3
주 관 식					
번호	답	안	배 점	주의사항	
1	아프리카 가면(들)		4		
2	(가) 나사, (나) 펌프, (다) 압정, (라) 클립, (마) 드라이아이스		5	○ 각 1점씩 부분 점수 인정	
3	다-라-가-마-나		4	○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음. ○ 다섯 개의 순서가 다 맞을 경우 4점, 틀릴 경우 0점으로 처리.	